

축산물 안전성 확보 나선다

전주시, 부정 축산물 유통·불공정 거래 행위 예방 위해 '취급업소 위생점검' 실시

전주시는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취급업소 대상 위생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15일 밝혔다.

점검을 통해 시는, 상습·고의적 중대 과실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실시해 부정 축산물의 유통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예방한다.

점검 대상은 전주지역 축산물 취급업소 1590곳으로 명예축산물위생감시

원 등과 합동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점검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처리 여부, 위생적 취급·운반 기준 준수 여부, 냉장·냉동 기준 여부, 식육 제거·폐기 여부, 냉동 식육을 해동해 냉장 식육으로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기타 소비자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에 대한 점검도 함께 할 예정이다.

시는 영세 소형 영업장 대상으로 미생물(ATP) 측정 위생진단 서비스와 축산물위생관리법령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추진한다.

김종성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축산물의 생산·유통단계별 위생관리 강화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아영 기자



전주첨단벤처단지 입주기업 송년 교류회 '2022전주첨단벤처단지 입주기업 송년 교류회'가 15일 우범기 전주시장과 입주기업 관계자, 유관 기관 임직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첨단벤처단지 혁신창업허브에서 열렸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단속 196건·155명 검거

전북경찰청, 7개월간 집중단속 실시 결과 교통법규 위반차량 노린 고의사고 가장 많아

전북경찰청은 지난 3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 중 196건을 적발하고 155명을 검거했다.

이번 단속은 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비롯해 도내 5개 교통범죄수사팀을 주축으로 7개월 간 집중단속해, 집중단속 기간 중 총 196건·155명을 검거하고, 사안이 중한 10명은 구속했다.

전북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 집중단속'에서 고가의 튜닝 차량을 이용해 법규 위반차량 대상으로 44회 고의사고를 야기시켜, 보험금 약 4억 5000만 원 편취한 보험설계사·차량수리업자 등 피의자 10명을 검거했다.

전주완산 교통범죄수사팀은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대상 고의사고 야기, 총 22회에 걸쳐 약 3억 7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부부관계 포함) 5명을 검거(구속 2)했다.

군산 교통범죄수사팀 조직폭력배 포함된 일당이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3회에 걸쳐 보험금 약

5200만 원 편취한 피의자 19명을 검거했다.

범죄유형별 적발현황을 보면, 고의사고(86.2%), 허위·과장 사고(13.2%), 병일·정비사 사건(0.5%) 순으로 고의사고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고의사고 유형의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등 과실 비율이 높은 차량이 주요 범죄 대상이 됐으며, 끼어들기 등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유형 수법이 가장 많이 적발됐다.

유형별 적발 현황엔 고의사고, 허위·과장 사고, 병일·정비사 사건 등이 있다.

고의사고로 인한 보험사기의 표적에서 벗어나려면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해 안전운전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보험사기가 의심 사고를 당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당장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 등 증거자료를 최대한 확

보해 향후 수사를 대비해야 한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비교적 높은 경제적 보상에 비해 특별한 범죄기술이 필요치 않아 보험범죄와 무관한 일반인이 동승자 등으로 쉽게 가담하는 사례가 많다.

보험사기로 인해 예정된 손해를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며, 심각한 경우 보험제도의 존립기반 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보험사기는 다른 사기범죄와 달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가중처벌되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벌이 가능한 만큼, 당장의 이익을 위해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일을 절대 없어야 한다.

전북 경찰은 집중단속 결과를 토대로 교통사기 다발 장소의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시기·장소에 맞는 테마별 집중단속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경찰청 교통조사계장 경정 유성민(063-280-9057)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야생화된 들개 집중 포획

전주시, 인명·재산 피해 예방 위해 추진

올 연말까지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생화된 들개 집중포획에 나선다.

들개는 야생화된 유실·유기견으로, 야산 등지에 무리를 지어 다니다 사람과 마주칠 경우 인명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농작물 훼손, 가축·재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순찰을 통해 들개 목격시 마취약품 및 포획도구를 활용해 포획에 나선다. 또한 들개 대면시 주의사항과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현수막을 게시해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들개 서식지인 완산칠봉 일대의 정혜사와 완산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전문 포획팀을 설치기로 했다. 포획된 개체는 유기동물 보호센터로 인계돼 보호조치 및 입양될 예정이다.

들개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전주시 유기동물 보호센터, 완산소방서 구조대와 협력해 들개 포획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김종성 전주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유기견의 들개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아영 기자

전주농기센터, "벼 정부보급종 종자 지원 신청하세요"

전주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성)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내년에 파종할 벼 정부보급종 종자 지원 신청을 오는 20일까지 접수한다.

보급종 종자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희망 품종과 수량을 신청하면 된다.

공급되는 종자는 신동진, 동진찰, 해품, 해달쌀, 수광, 새누리, 미품, 운광 등 8품종으로, 보급량은 총 80.6톤이다. 농가의 신청 단위는 20kg/포 기준으로, 가격은 내년 1월 고지될 예정이다.

신청한 종자는 내년 1월 10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청한 지역농협으로 공급되며, 전량 미소독 종자로 공급되고 있는 만큼 지원 농가는 카다리병 등 종자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종자소독을 진행해야 한다.

별시 종자소독은 종자 표면이나 내부에 묻어 있는 도열병, 카다리병, 깨씨무늬병 등의 병원균을 제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소독방법은 소금물가리기, 온탕소독, 약제소독 순으로 진행한다. /최아영 기자

전주시 완산구, 체납지방세 징수 행정력 집중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엄익준)는 2022년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을 정해 오는 12월 말까지 운영하며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전주시 완산구 세무과는 오는 30일까지 구·동 체납지방세 징수반(25개 반 46명 구성)을 구성해 체납지방세 53억 원 집중 징수계획을 세웠다.

이번 지방세 특별징수기간은 체납고지서 및 납부안내문을 16일까지 발송한다. 또 자동차에 체납자 번호판 영

치를 오는 23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고액체납자 부동산 압류, 가택수색,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액 일소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여기서 영세기업·소상공인 등에 대한 생계형 체납자인 경우는 분할납부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방세 체납액은 구청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 전화 문의 및 가상계좌 안

내, 방문 납부(신용카드), 전주시 지방세 ARS(1588-2311)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위탁스(www.wetax.go.kr),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 '스마트 위탁스' 앱 모바일 등을 이용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완산구 세무과장은 "2022년 회계마무리 체납지방세 특별징수기간 운영으로 연말까지 징수목표액 53억 원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 방문 및 완산구청 세무과(063-220-5299, 5388, 5298)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겨울철 산행 안전사고 주의 당부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전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주말 겨울철 산행 안전사고 주의를 당부했다.

겨울철 급격한 온도변화에 따른 등산객 저체온증, 낙상, 추락 등 많은 산악사고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주덕진소방서는 안전한 산행을 위

한 산악사고 예방법 안내에 나섰다.

겨울철 산악사고 예방법에는 여벌의 옷과 핫팩 등 보온재 준비해 보온에 유의하기, 충분한 준비운동 실시, 기상 정보와 산행코스 등을 숙지하기, 겨울철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지거나 어두워 길을 잃을 때 대비하여 일몰 3시간 전에 하산기, 지정된 등산로로 산행하기 등이 있다.

전주덕진소방서 열정길 구조·구급팀은 "겨울철 산행은 체감기온 영하 10도를 웃도는 추위에 대비해 반드시 겨울용 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미끄러짐, 추락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조난사고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 산행 중 산악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산로에 설치된 위치표지판 번호를 보고 119에 신고하면 요구조자의 위치 파악이 용이하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